

# 이남호 “교육행정 체계 전면 개편할 것”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교사들 자긍심 회복이 교육 혁신 출발점” 강조

행정업무 감축·악성 민원 교육청 대응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예비후보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교권·행정혁신’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흔들리면 학생들의 배움도 흔들린다”며 “학교의 중심을 다시 수업과 학생 성장에 맞추기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교육감-교사타운홀 미팅 정례화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대응 △교사 행정업무 OECD 평균 수준 감축 △수업 전문성 우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교사가 개별적으로 감당하던 악성 민원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하위법령 ‘스쿨 로이어’를 운영해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기반 민원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72시간 이내 상담과 법률 지원, 증거 확보 등이 가능한 보호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의 보호 의견서를 신속 발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내놴다. 이 후보는 교사 행정업무를 단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주당 8시간까지 줄이고, 체합학습 업무를 전담하는 ‘교외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와 계약 정산 등의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관리공단과 테크센터, AI 행정비서를 도입해 시설·공문·학생기록부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규교사에 대해서는 임용 후 1년간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수업 역량 우수 교사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교권·행정혁신’ 공약을 공개했다.

에게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연구 인식화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AI·진로진학 분야 과목교사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포인트 인상과 동료연수 제도화, 연구비 현실

화 등을 추진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원 배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원은 강하게 보호하고 행정은 과감하게 줄여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놓겠다”며 “전북 교육 혁신은 교사의 자긍심 회복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천호성·유성동 단일화, 정치공학적 야합”

이남호 예비후보 측, “도민·교육가족에 실망·우려 안겨”  
정책국장 거래 의혹 수사 촉구… “도민 앞에 해명해야”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천호성·유성동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정치공학적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남호 후보 선대위는 7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감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자리 나눠먹기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단일화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성동 후보가 과거 천호성 후보의 표절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까지 촉구했던 점을 언급하

며 “도덕성을 문제 삼던 후보가 돌연 단일화에 나선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무너뜨린 정치적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또 천호성 후보를 향해 “다른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야합’이라 비난하던 입장을 뒤집었다”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교육청 정책국장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유성동 후보의 농축력 발언으로 알려진 “천호성에게 간다면 최소한 정책국장을 약속받고 가느냐”이해

해달라”는 내용을 거론하며 “공직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죄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두 후보는 농축력 논란과 교외직 거래 의혹에 대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남호 후보 측은 △표절 문제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 △정책국장 거래 의혹 공개 해명 △의혹 사실 확인 시 후보직 사퇴 등을 두 후보에게 요구했다.

선대위는 “전북교육에는 정치공학이 아닌 미래 교육 생태계를 설계할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치와 공정의 가치를 전북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도내 8개 권역서 단위 학교 과목 개설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도내 8개 권역에서 단위 학교 과목 개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2학기 고교학점제 운영을 앞두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읍면지역과 소규모학교의 경우 강사 수급과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반영해 우선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순차 진행된다. 8일 정읍을 시작으로 △11일 남원·순창·임실 △12일 장수·무주·진안 △14일 익산 △18일 전주 △19일 군산 △21일 부안·고창, 김제·완주 등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운영 방향과 단위 학교별 과목 개설 확대 방안,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국립군산대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 사업설명회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은 7일 교내 전체 학과 재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자공학, 방화정경철합부 등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운영성과 사업 목표와 교육과정, 장학 혜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까지 신소재공학과 이차전지에너지학부, 첨단과학기술학부,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참여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6년부터는 전 학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일반학과 대상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한 초단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소단위 이수제도) 과정은 비이공계 학생들도 이차전지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입문 이해 리더의 단계별 과정과 기초 이론을 보완한 실험 수업,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이차전지 진로설계 교과목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산업 현장서 진로 꿈 키운다

전주교육지원청, 굿월스토어 현장 견학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체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7일 전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6명을 대상으로 굿월스토어 전주점에서 산업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하게 될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업체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주요 작업 과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 근무 환경

등을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진행된 현장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에서는 굿월스토어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해 실제 직장 생활 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 등을 들려주며 학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채신영 교육장은 “이번 현장 견학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2026 상반기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 기반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연수를 운영했다.

전북교육청은 7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특수학교와 계룡산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고등학생 대상 직업 특성화 교육과정 연수, 장애인보조작업장 체험, 무장애 탐방로 체험,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주대사범대부설특수학교는 전국 최초로 진로직업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참석자들은 장애학생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무장애 숲길 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협력적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오상근 기자

## 전북대, 글로벌 사업 통한 학사 혁신 ‘가시적 성과’

모집단위 광역화 안착... 지원자·합격자 성적 상승  
무전공 확대·전공선택권 강화... 학업 지속성 등 개선

전북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한 학사제도 혁신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나타냈다. 모집단위 광역화를 중심으로 한 전공 선택권 확대 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지원자 규모와 경쟁률 합격자 성적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상승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대가 최근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시모집 지원자는 2025학년도 2만3,876명에서 2026학년도 2만4,760명으로 884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합 경쟁률도 7.6대 1에서 7.8대 1로 상승하며 대학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성적에서도 개선이 확인됐다. 최종 등락지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2025학년도 3.79에서 2026학년도 3.68로 상승했다. 지원자 평균 등급 역시 4.23에서 4.17로 개선됐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주요 전형인 큰사람전형,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 전방에서 평균 등급이 상승해 특정 학과에 국한되지 않은 대학 전체 경쟁력 향상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 모집단위 광역화의 긍정적 영향으로 풀

이된다. 전북대는 기존 106개 모집단위를 46개로 통합하고, 전체 입학정원의 약 75.9%(인 2,920명)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등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구조를 구축해왔다. 학생이 입학 이후 적성과 진로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학·전과와 다전공 제도를 확대한 점도 주요한 변화로 꼽힌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5학번 전공배정 결과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성과가 확인됐다. 전체 대상자 2,770명 가운데 82.5%가 1차 전공에 배정됐으며, 전공배정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54%, ‘만족’ 28%로 전체 응답자의 8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대학 측은 제도 수용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학업 지속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025학번 2학년 진급자의 재학률은 82.7%로 전년(80.5%) 대비 2.2%p 상승해 모집단위 단위 입학 체제였던 이전 학번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입학생 구성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전북·호남권 중심의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수도권과 충청 학과에 국한되지 않은 대학 전체 경쟁력 향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대가 지역 거점대학을 넘어 전국 단위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김재훈 기자

## 초등 학교자율시간 과목 확대

전북교육청, 39개 과목 교육감 승인...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정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운영을 적극 확대하며 학생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정착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교과나 활동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제도다. 지역 여건과 학생의 특성, 학교의 교육 방향을 반영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승인 과목 18개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는 5~6학년 대상 21개 과목을 추가해 총 3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운영 과목도 다양하다. ‘정서’, ‘공감 대화’ 등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비롯해 ‘꿈실립공동체’, ‘꿈꾸는 경제’와 같은 경제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관련 과목 등이 포함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3~4학년이 지난해부터 한 학기 29시간, 5~6학년은 올해부터 32시간의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승인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모델 개발 연구학교’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봉동초와 회현초, 무주초, 이리묘현초 등이 연구학교로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과목 개설 절차와 행정 사항, 실제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확대는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사들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같은 경제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관련 과목 등이 포함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3~4학년이 지난해부터 한 학기 29시간, 5~6학년은 올해부터 32시간의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승인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모델 개발 연구학교’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봉동초와 회현초, 무주초, 이리묘현초 등이 연구학교로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과목 개설 절차와 행정 사항, 실제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확대는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사들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변화하는 대입제도 대응·진학지도 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청, ‘2026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 내일부터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변화하는 대학 입시 환경에 대응하고 교사들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2026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오는 9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연수는 매주 토요일 오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강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연수는 진학지도 경험 수준에 따라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기본반은 신규 진학교사나 최신 대입 정보를 체계적으로 익히고자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신규 교사를 위한 진학지도 로드맵,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략, 전형별 대학 평가 방식 이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략 등이다.

심화반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 지도 방법과 대입전형별 실제 평가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